

성인 미세변화 신증후군(MCNS)의 장기 추적 관찰 - 급성 신부전 유무에 따른 임상상 비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¹

박정환, 이정표, 이승표, 주권욱,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이현순¹

목적: MCNS는 소아 신증후군의 주요 원인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신증후군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MCNS는 다른 사구체 신염에 비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장기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MCNS 환자를 장기 추적한 보고가 많지 않다.

방법: 연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198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조직 검사로 확진된 16세 이상의 MCNS 환자로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상과 치료 반응, 그리고 장기 예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급성 신부전이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 간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는 69명으로 남녀비는 45:24(1.9:1)이었으며, 초진 시 연령은 평균 32세(16-72)였고, 관찰 기간은 66개월(6-192)이었다. 혈청 알부민은 1.9 ± 0.5 g/dL, 콜레스테롤은 455 ± 130 mg/dL, 일일 단백뇨는 12.8 ± 7.0 g/day였다. 혈뇨가 21명(30%)에서 관찰되었고 그 중 한 명은 육안적 혈뇨를 보였다. 고혈압은 6명(8.7%)에서 있었다. 스테로이드 초치료를 한 60명 중 완전 관해가 온 경우는 49명(82%), 부분 관해 6명(10%), 저항성을 보인 경우는 5명(8.3%)이었다. 완전 관해는 8주까지 42명(70%), 16주까지 46명(77%)에서 왔다. 완전 관해가 온 환자 중 재발하지 않은 경우는 19명(39%)이고 관찰 기간은 46개월(6-140)이었다. 재발한 환자 중 스테로이드 의존형이 10명, 빈번 재발형이 2명, 그 외 18명이었다. Cyclophosphamide와 스테로이드 복합요법을 초치료(7명) 또는 스테로이드 단독 요법 이후에 사용한 경우는 29명으로 이중 26명(90%)이 완전 관해를 보였다. 나머지 3명은 cyclosporin과 스테로이드 복합 요법을 사용하여 2명은 완전 관해, 1명은 부분관해가 왔다. 2명은 특이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완전 관해가 왔다. 초진 시 급성 신부전이 있었던 환자는 24명(35%)으로 이들의 연령은 34 ± 15 세로 급성 신부전이 없었던 군의 31 ± 14 세와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에 성비, 혈청 알부민 값은 차이가 없었고, 급성 신부전이 있었던 군이 24시간 요 단백량과 고혈압의 동반이 더 많았고, 조직 소견에서 세뇨관 간질의 변화가 심하고 스테로이드 초치료에 완전 관해가 오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마지막 추적 관찰 시를 기준으로 대상환자들 중 2명은 부분 관해, 3명은 신증후군이 재발한 상태였으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없었다.

결론: 성인 MCNS의 약물 반응성과 장기 예후는 좋았으며, 초진 시 급성 신부전 유무에 따른 환자들의 임상상이나 예후의 차이는 없었다.